**[입양의 은혜]**  2020.05.17

엡 1:3-6 정성록 목사님

엡 1:3-6

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 이 세상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엡 1:4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실까?
*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 하나님은 영이시다.
* 성경에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는 말을 하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가능하다.
*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
*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 롬 3:23 말씀을 보십시오.

롬 3:23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적혀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 생명책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 엡 1:5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입양했다], [양자되었다]라는 의미이다.
* [양자됨의 특권]은 친자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 엡 2:1에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엡 2:1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우리는 이미 죽었던 상태였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사망의 종이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였다.
* 엡 2:12 말씀을 보겠습니다.

엡 2:12

1.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 입양 전의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외인이었으며, 하나님과 관계없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은 죽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입양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셨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권은 어떠한 특권인가? 요 1:12 말씀을 보아라.

요 1:12

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어떠한 권세인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다.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권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인도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 롬 8:28 말씀을 보아라.

롬 8:28-30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를 정하셨다.
*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입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단도 동일하게 한다.

고전 12:3

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음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는 행위에 있지 않다.
*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구세주가 되심과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오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라고 하심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죽었던 심령 가운데, 에스겔의 죽어 있는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생명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 고전 2:14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더 명확하게 적혀있다.

고전 2:14

1.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른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님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놀라운 한 가지가 엡 1:17에 기록되어 있다.

엡 1:17-19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2.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3.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박음을 알게 하신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알게 하신다.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호 11:1

호 11:1-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렸다. 여기서 [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 어린 아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 주셨으며, 사랑하셨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했다.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을 의미한다.
* 호 11:3 하나님께서 입양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 호 11:4 멀어지려고만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멀어지려고만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며, 악질적인 모습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음에도 우리는 계속 멀어지려고만 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 호 11:8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주변 성읍이다.
* 히 12:5-8은 하나님 아들의 특권이다.

히 12:5-8

1.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ㄱ)](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Readpage.php?version=GAE&book=heb&chap=12&sec=1&cVersion=&fontSize=15px&fontWeight=normal)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2.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3.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4.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 호 11:8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 지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불붙듯이 부어 지신다.
*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려졌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랑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보장과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다.
* 우리들의 종착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화로운 존재로 되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를 가르치시며, 안고 계신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드신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요일 3:1-3에 말씀하셨다.

요일 3:1-3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책임이 남아있다.
*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 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 같다 라는 말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마 5:48

1.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우리가 온전하게 됨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
*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습 3:17 말씀처럼 사랑하셨다.

습 3:17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집중하고 계신다.

요점

*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라.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적용

*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되, 균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